

북한개발소식

2022 OCT

10

통권 204호

이달의 주제

북한 마약 문제와 선교

탈북민 수기

주님의 은혜 (2)

북한뉴스

북한, '선제공격' 핵사용 5대조건 천명...
'침수작전'에도 핵타격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 마약 문제와 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2022 OCT}

이달의 주제 :

북한 마약 문제와 선교

권두칼럼 **01** 북한 마약 문제와 선교

칼럼_1 **10** 이용희_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북한 주민 마약사용과 중독

칼럼_2 **15** 전수미_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이탈주민과 마약문제

칼럼_3 **20** 김재환_ 만성적인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의 일상화

탈북민 수기 **29** 김모란_ 주님의 은혜 (2)

북한뉴스 **35** 북한, '선제공격' 핵사용 5대조건 천명... '참수작전'에도 핵타격 외

북한 기도 제목 **38** 북한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최근 한국 내 마약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의 마약사범 건수는 UN의 마약청정국 기준선인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섰다. 21년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6153명에 달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범죄 사례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¹ 기존에 알려진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의 마약 외에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약물인 펜타닐 등이 제도의 허점을 틈타 새로운 마약으로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 소비 지역도 전국을 망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4월부터 1년간 각 지역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개 곳의 하수에서 마약류 검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엑스터시는 21개 처리장에서 나왔다. 암페타민(17곳) 코카인(4곳)이 검

출된 곳도 있었다.²

북한 역시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부터 생산된 빙두(필로폰)가 중국을 거쳐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고, 북한 내에도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마약 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작년에는 마약범죄방지법을 추가로 제정하기도 했다.³ 북한 당국의 행보는 북한의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의 마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마약사범과는 달리 의약품 부족에 따른 대체 약물로서의 기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들 중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는 상당수가 과거의 습관과 경험에 따라 본이 아

1 “하루가 멀다하고 적발되는 마약사범...안전지대 없나”, 아주경제 (2022.07.09.), <<https://www.ajunews.com/view/20220709122139310>>

2 “하수처리장은 알고 있다... 이 동네에서 마약을 얼마나 하는지”, 한국일보 (2022.06.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312510003957?rPre-v=A2022062410480001052>>

3 “북한'마약과의 전쟁'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새로 제정”, 연합뉴스 (2021.07.02.), <yna.co.kr/view/AKR20210702052600504>

니게 연관된 경우이다. 그렇지만 단순 투약만이 아닌 마약의 유통 및 밀매에 연루된 죄질이 심각한 마약사범도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의 마약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불신하거나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비하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퍼트린 유언비어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마약’의 특성상 유통이나 소비 등 관련 활동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여러 취재와 연구, 정보가 쌓이면서 북한의 마약 문제는 이제 문제 인식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이 되었다.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의 마약 문제는 한국 교회에게도 실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 마약의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최근 보도들을 토대로 현황을 진단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마약의 역사

북한은 오랫동안 마약을 생산하여 판매, 유통시켜서 외화 획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북한 관리들이 외국산 불법 마약



〈2011년 5월 3일 국제엔네스티를 통해 공개된 요덕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위 사진을 분석한 어떤 전문가들은 경내 아편 경작지가 약 33만m2 가량 면적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조선일보)〉

을 매매하면서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마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976년 노르웨이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북한 외교단원 12 명이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서 추방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산악지대인 함경도와 양강도 일대에서 비밀리에 마약을 생산하기도 했으나 대대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즈음부터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주로 만들고 거래해온 마약으로는 아편이 꼽힌다. 아편은 그 자체로도 마약일 뿐 아니라 헤로인 등 다른 마약의 원료가 된다. 1992년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사실상 국가적으로 공식 사업화여 마약을 본격적으로 생산했다. 김정일은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사업(White Bellflower)’이라 하였으며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였다. 요덕수용소 근처의 마약 재배지가 2001년 이후 10년 사이에 15배가 늘었을 정도로 북한은 정치차원에서 마약을 직

접 재배해왔다. 특히 무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외화벌이 판로를 마약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북한 정부는 소위 ‘필로폰’, ‘히로뽕’, ‘빙두’ 등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통시켰다. 2010년에는 북한 군 보위사령부의 지시로 북한산 최고급 필로폰이 밀매된 사건이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마약 판매액 중 30%는 당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작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⁵ 2012년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의사들이 병원을 거점으로 마약을 밀매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을 활용하며 마약 제조뿐 아니라 밀거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⁶

북한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야쿠자·마피아·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외부 노출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⁷

관련하여 2014년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합동 군사연구소(RUSI)는 ‘마피아 정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마약생산이 국영 기업에서 개인 사업자로까지 확대돼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해 판매처를 중국으로 돌리면서 중국은 북한산 마약의 최대 유통지이자 경유지가 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으로의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⁸

이렇듯 북한의 마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마약 문제는 다른 의미로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즉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은밀하게 생산, 유통시켜왔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와 김석향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국가 공장들 또는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된 마약이 북한 내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주민들의 마약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기가 대략 2003년에서 2007년 사이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9,10} 주로 생산 및 거래되는 마약은 빙두 또는 얼음(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이다.

8 "북한 마약유통 통제력 잃어 중독자 급증 몰살", 연합뉴스 (2014.11.10.), <<https://www.yna.co.kr/view/AKR20141110181800085>>

9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2013).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Upsurge in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ume 9, Number 1 (Spring 2013), 45 - 60.

10 일각에서는 북한의 화물선 봉수호가 2003년 3월 헤로인 150kg을 싣고 호주로 밀반입하다가 나포된 이후 북한의 마약 사업이 축소하면서 민간으로 마약이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미국 국무부의 '2009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는 2003년 '봉수호' 사건 이후 북한 정부가 대규모 마약 거래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지난 6년 간 북한 정부와 관련된 마약 범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미 마약 보고서, '지난 6년 간 북한 관련 마약 범죄 크게 줄어'", VOA (2009.02.27.), <<https://www.voakorea.com/a/a-35-2009-02-27-voa25-91385324/1325045.html>>)

4 송봉규. (2015).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한국경찰학회 보 55권 0호, 159.

5 "검찰, 北공작기관 '외화벌이 마약거래' 공식확인", 한국경제 (2010.05.2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0052544228>>

6 "중국내 북한 의사들, '마약 밀매' 현장 포착", KBS뉴스 (2012.07.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496413>>

7 송봉규. (2015). 앞의 글, 151-152.

메트암페타민은 제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화학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아 민간에서도 만들기 비교적 쉽다. 또한 각성제 및 흥분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활력’, ‘자신감’ 그리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식욕 감퇴 효과도 있어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마약으로 인해 피골이 상접하고 신경질적인 중독자의 이미지는 바로 메트암페타민 중독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트암페타민 상습 복용자는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며 마약 복용을 중단했을 시에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린다. 중국의 마약사범들은 단속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싼 가격에 마약을 생산하기 위해 북한에 원료를 제공하고서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범죄조직은 필로폰 제조 기술과 시설을 제공하고, 중국 범죄조직은 필로폰 원료인 중국의 특정 자생 식물을 공급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¹¹

마약 문제의 심각성

마약이 민간에 확산되면서 북한 당국은 마약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 주민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제 7차 당대회 이후 각 지역에

하달한 ‘군중정치사업제강’에는 마약을 ‘사상 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불순분자의 강력범죄가 사회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간 쓰레기들을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¹² 21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마약 제조 및 마약사용에 대한 기존 형법 기준보다도 강화된 처벌 기준을 담은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했다.¹³ 북한 당국이 바라보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탈북민들을 통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마약이 퍼져있으며 그 폐해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양옥경 교수가 2016년 탈북자 1,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90년대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4.7%에 불과했던 마약 접촉자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15년 이후 탈북자들에서는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 마약 사용 비율에 대한 질문에서도 90년대 탈북자는 59.3%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했지만 2015년 탈북자 중에서는 16.7%만이 10%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30%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50%, 심지어 90%라고 대답한 탈북자

들도 있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년대에는 64%이었으나 15년에는 25%대로 줄어드는 반면 매우 또는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은 90년대 26.7%에서 15년에는 59.2%로 증가했다. 주요 피해로는 신체적으로는 두통과 식욕부진, 불면 등을 언급했고 정신적으로는 심한 우울, 심한 불안, 환청, 환시, 환촉 등이 거론되었다. 마약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왕왕 발생했고, 이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 중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도 90년대 4.1%에서 2015년 34.6%로 높아졌다.¹⁴

이렇게 마약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빙두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없거나 희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란코프와 김석향 교수의 연구에서 증언자들은 빙두를 건강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한 증언자는 빙두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뇌졸중 등이 왔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다고 응답했고, 또 다른 증언자는 빙두를 하면 사람이 진정되고 그 외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¹⁵ 양옥경 교수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 중 빙두를 치료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26.6%로 나타났다

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59.9% 가량 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최근 탈북한 탈북자일수록 빙두를 마약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마약이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빙두가 활력을 증진시키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극단적인 행복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이 아닌 의약품 또는 강장으로 생각하다가, 마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와 성분에 따른 차별 및 억압이 개인이 마약에 빠지도록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술도 있다. 이근무, 유숙경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부터 마약을 복용하여 중독 증세를 보였다가 치료와 재활로 회복된 탈북민 남성 8명을 대상으로 마약중독경험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¹⁶ 해당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극도로 억압된 북한 체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결과지상주의, 황금만능풍조, 좋지 못한 성분으로 인한 꿈의 좌절과 그에 따른 절망감 등으로 인해 삶에 대한 체념과 허무감을 느꼈고, 이는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고 답했다. 그 중 어떤 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조 속에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일종의 각성제로 마약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극도의 경제적 궁핍과 기아,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12 “체제 위협 느낄 정도” 北 마약 병폐 심각”, 한국일보 (2016.10.13.),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10130422412079>>

13 “북, 마약사범 급증에 ‘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자유아시아 방송 (2021.08.0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m-08032021091443.html>

14 양옥경. (2016). “북한의 마약 사용 현황과 과제”. 북한의 마약 사용 실태 현황과 과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마약문제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16), 55-78.

15 Andrei Lankov and Seok-hyang Kim. (2013). 앞의 글, 56.

16 이근무, 유숙경. (2021).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4, 23-50.

11 [창+] “북은 마피아국가...마약조직통제안돼”, KBS(2022.07.1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5694>>

에서 마약을 심리적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마약 거래가 고도의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황금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였고 중독자가 되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마약 밀매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는데 북한의 부정부패는 마약을 통한 돈벌이를 가능하게 했다. 연구대상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감정이 마약 사용과 밀매를 정당화했고, 마약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자기합리화의 논리로 활용되어 마약 중독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았다.

탈북자와 마약 문제

북한의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탈북자 중에도 마약 관련 범죄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8월)까지 약 5년간 국내 탈북민의 범죄 사범 유형을 살펴보면 마약 관련 범죄가 전체 785명 중 270명으로 34%가 넘어 전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마약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고, 가족 사망 등의 사유로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또는 통증 치료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마약류를 밀수해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북한산 마약류를 국내 및 일본 등에 밀반입하여 판매해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나 국내 마약조직 및 밀반입책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혹을 받고 각종 은닉방법을 동원하여 마약을 밀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북

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판매 및 투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⁷ 탈북민 마약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¹⁸ 먼저 북한 거주 당시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약처럼 사용했던 마약류 복용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습관이 남아있고 마약류에 대한 법 지식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마약류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마약류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도 탈북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예를 들어 대마는 남한은 마약으로 규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역삼’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흔하게 재배되고 있고 2004년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국가적으로 대마 재배를 장려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다보니 국내 입국 후에도 대마를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탈북민끼리 연계된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동료 의식이 강해서인지 하나의 마약류 사건에 다수의 탈북민은 공범자가 연루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교도소 수감 재소자 48명(사건 51건) 중 17명(18건)의 마약사범 모두

17 안상원. (2022).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22-24.

18 양양규 외. (2021).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84, 146.

19 ‘전 군중적 운동으로 온 나라를 대마숲으로 뒤덮자’, 로동신문 사설 (2004. 8.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동향분석(북한매체) 2004년 8월 16일-8월 31일”에서 재인용 <<http://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319&bbsNo=83&nttNo=53137>>

〈표1. 북한이탈주민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	합계
죄명	강간	14	16	15	21	17	83
	강도	3	4	3	2	2	14
	공안관련	4	4	4	2	3	17
	과실범	7	10	6	7	13	43
	마약류	54 (37.5)	45 (31.0)	55 (36.2)	56 (33.1)	60 (34.3)	270 (34.4)
	사기·횡령	17	19	16	25	24	101
	살인	9	11	12	17	17	66
	절도	9	4	7	7	4	31
	폭력	2	0	0	0	0	2
	폭력상해	7	10	10	9	13	49
	협박강갈	2	2	2	4	1	11
	기타	16	20	22	19	21	98
	합계	144	145	152	169	175	785

출처 : 법무부, 2021년 북한 이탈 주민 수용자 현황

가 공범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한 공범 전원이 탈북민이었다.²⁰ 이는 탈북민의 마약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 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치료와 예방의 어려움

마약 중독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마약 중독이 유발하는 여러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조치, 그리고 마약을 중단했을 때 동반되는 심한 우울감에 대한 처방으로 항우울제 치료가 일부 도움이 될 뿐이다.²¹ 결국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마

20 장준오, 고성호. (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4.

21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drugfree.or.kr/information/index.html?contentsNum=3&category=DRUG_3&headNum=1&seq=2255&tpage=1) (검색일 2018.03.16)

약을 중단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중요하며 치료 공동체 참여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 약물 남용자 치료 과정에서는 의학적인 접근과 심리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이 모두 동원된다. 이를 다방면 접근(A multi-Pronge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혐오요법과 심리치료, 그리고 치료 공동체 모임과

같은 다각적인 집단접근을 활용한다.²² 현재 북한에서의 치료법은 어떠할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문치료기관은 전무하고 대부분 교화소로 보내져서 구타와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개중 일부는 정신병원인 ‘49호 병원’에 감금하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평양의 특수계층을 위한 마약 관련 치료 병원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나 정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지는 마약을 통제하고 주민 생활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이나 마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22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홈페이지 <<https://www.healthpro.or.kr/health/viewC.php?number=59&cat=6>> (검색일 2022.09.20.)

23 양옥경. (2016). 앞의 글, 70-74.

제공 및 중독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재활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의약품 부족 및 의료 기반 부족도 단 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록 북한에서 마약을 접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두 중독자인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도 마약은 비교적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더라도 주로 의료적 목적으로 소량 복용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만 향상되더라도 마약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의 열악한 의료 기반 및 의약품 공급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봉쇄까지 겹친 현 상황은 마약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 여건 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복음의 힘: 마약 치료와 선교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마약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마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의 심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아직은 마주할 기회가 적지만 우리가 만나는 탈북민 중에서, 또 앞으로 만날 북녘의 영혼들 중에서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의 만남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마약 전파를 단순

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기에 앞서 문제 뒤에 숨겨진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마약 문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북한 체제가 가진 영적인 어두움과의 연관성이다. 북한에서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특유의 억압과 통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배경 성분에 따라 이미 인생이 결정되어버린 절망감 등이 희망이나 삶의 의지 대신 불안과 허무의 감정을 조장하면서 마약에 더 쉽게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출세한 사람이라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넓게 퍼져있다 보니 이런 두려움을 잊고자 마약에 빠진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⁴ 이들은 ‘마약은 건강에 해로우니 하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나는 즐기다 뒤져버릴란다. 건강은 개뿔’이라는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건강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미래를 희망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마약을 즐기고 잠깐이나마 고통과 고민을 잊고 살겠다고 선택하기 쉬워지고 당연히 치료는 매우 어려워진다. 즉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약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긍정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

24 “특별인터뷰-엄마, 나 한 코만”. 오픈도어 북한개발소식 150호 (2015년 8월호), 18-24.

와주어야 하는 심리적이면서 영적인 문제이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북한 체제가 개인에 대한 억압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국가적 신념체계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경험 이후 통제논리로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각 개인의 삶에서는 그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마약문제는 공허함과 불안감 속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외침을 반영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약 중독 재활 관련 사역자들은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기존의 삶의 방식과 인간 관계를 갈아엎는 큰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약물중독 치료자할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사람들 대표 신용원 목사는 마약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인간관계의 완전한 정리와 새로운 공동체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²⁵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지도실장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⁶ 위 사역자들은 실제 본인도 마약 중독자였으나 신앙과 공동체를 통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교회는 복음을 통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서의 변화와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

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이념을 따질 성질의 것도 아니고 말초적인 가십거리도 아니다. 영혼들을 직접 마주하는 교회가 일반 사회가 그러하듯 마약이라는 주제를 터부시하고 중독자들의 존재를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마약이라는 어둠의 속박을 깨뜨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지 고민해야 한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북녘의 영혼들이 가진 영적인 갈망을 이해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애쓴다면 마약이라는 커다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25 “마약 끊는 방법이요?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포털뉴스 (2009.06.24.),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8>>

26 “지독했던 25년간의 마약중독에서 빠져나온 진솔한 이야기”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센터장 간증, CBS 새롭게 하소서 (2021.01.25.), <https://www.youtube.com/watch?v=gU5r_YU5vKQ>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북한 주민 마약사용과 중독

이 용 희 교수 (가천대학교)

북한이 최초로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다. 2021년 7월 1일 개최된 제1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다. 북한 언론들은 마약범죄 방지법에 대해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¹ 이 법 제정과 함께 곧이어 마약범죄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다. 검열의 대상이 된 기관 근무자들은 모두 가슴을 졸였다고 했다. 마약 생산에 쓰이는 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은 이번 마약범죄 방지법 검열에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고 긴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감기약도 없어서 마약으로 병 치료를 하던 주민들은 국가가 마약을 만병통치약처럼 쓰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검열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거의 30여 년을 마약으로 버텼었는데 이마저도 막히면 무엇으로 병을 극복해야 하느냐고 불안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중국약이 유

통되지 못하면서 마약이 일반적인 감기약처럼 돼 버려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법 기관에서도 마약을 국경으로 나르는 정도로 ...큰일로 여기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최근) 국가만 문젯거리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² 2021년 뉴스들을 통하여 북한 정권이 그동안 방치했던 마약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마약범죄 방지법까지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마약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까지도 아프면 부모가 마약을 주고, 노인들도 모든 병과 통증에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 중학생들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입학선물, 생일선물, 결혼식 부조금, 직장에서 뇌물로도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마약 실태를 알기 위한 학술적 접근(북한 내부 실태조사)은 현재로서는 불가

2 『데일리NK』, 2021년 8월 17일자. “마약범죄방지법 제정 후 첫 검열...국가과학원 등 연구기관이 타깃”

1 『문화일보』, 2021년 7월 2일자. “北, 마약범죄방지법 첫 제정”

〈표1〉 탈북민 인터뷰 내용⁶

“북한은 한집 건너 하나, 너무나도 그러니까 일반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생일 같은 날...뭐 좋은날 있으면 다 이걸(마약)로 있잖아요. 인사하고 이런 판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평양 100% 다. ... (중략) 안하는 거 머저리라고 하죠. (중략) (경제력 여유 여부와 상관없이)네. 이젠 다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늙은이들도 머리가 뻗뻗해지면 ... 그거 해야지만 편하니까. 애들도 매일 사다가 한단 말입니다.”

“(2000년대 중반 메스암페타민) 개인집에서 다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도 모르게 갖고 나와서는 자기네들 단골이 있으니까 팝니다. (중략) 다른 매대⁷ 하면서 하죠. (중략) 일반 약 파는 매대에서도 팔고. 대체로 보면 개인집에서 전화를 통해서 갖고 갑니다. (우리) XX구역 내 소분집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거 안하고는 장사 효과 없습니다. 마약 장사해야지만, 장사가 되고 집안이 일어서니까. 돈 좀 버니까. (중략) 담배곽 안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아는 단골 만나면 꺼내서 팝니다.”

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마약중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³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국내에 있는 탈북민 1,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종 탈북연도와 교차 분석한 결과,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마약 접촉한 경험은 1990년대 탈북한 사람들은 4.7% 그리고 2000년대 탈북민들은 7%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10~2012년은 13.6%, 2013년 26.8%, 2014년 25% 그리고 2015년 36.7%, 2016년 66.7%로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있을 때 마약의 생산, 장사, 밀수를 위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경우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⁴

북한 주민들이 마약 경험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

던 것은 마약을 사고파는 것이 손쉽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약을 쌀보다 더 구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한다. 평양시, 함흥시, 회령시 등 큰 도시만이 아니라 시골 산골까지 마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다. 북한 내에서는 마약을 살 수 있는 집을 소분집⁵이라고 부른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평양시에서 일반 개인집에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을 판매하였는데 탈북민들은 마약을 파는 개인집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 마약에 대해서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26.6%, 각성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18.2%, 약한 환각의 효과를 내는 환각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8.3%였고, 실제로 마약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30.6%에 불과했다. 북한에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마약이 치료제나 각성제로 널리 인식되고 사

3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동아연구』, 74권(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8), p.239.

4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34.

5 생산자나 도매상, 중간상인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후에 개인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개인집.

6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45.

7 북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

〈표2〉 탈북민 인터뷰 내용⁸

“혈전에 정말 그것 이상 없습니다.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혈전 앓아서...마비 와서 몸을 못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혈전이 딱 와서 1주일 안에 약(마약)을 쓰게 되면 회복하는데요”

“(약을) 시킵니다, 감기 왔다 하고, 대장염 왔다 하면 ... (중략) 할머니가 다리 아퍼서 이거(얼음) 하겠다고 하면, 조그만 아이들 보면 ... ‘할머니 나 다리 아파요. 한 코 할래. 한 코 할래’ ... (주: ‘한 코 할래’⁸ 라고 하는 아이의 연령을 묻자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다고 함, 당시가 2010년~2011년이라고 함)”

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은 탈북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⁹

마약의 가장 심각한 유해성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이유로 시작한 마약사용이 상습적으로 되고 빈도가 높아지면서 마약 중독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폐인이 되고 친지는 물론이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다. 마약을 하기 위하여 온갖 도둑질도 서슴지 않으며 집까지 팔아서 마약을 한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다. 마약 판매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 마약을 계속 복용하기 위하여 마약 판매자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마약 판매자가 될 경우 판매용 마약 10개를 받으면 7개는 팔아서 대금을 갚다 주고, 3개는 자기 것이 되므로, 마약 중독자들이 더 이상 마약을 사서 복용하기 어려울 때 마약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마약 복용을 지속하게 된다고 했다. 탈북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일례로 북한 주민들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의 비율이 30~50%로 보는 탈북민들은, 2000년대 탈북민

가운데서는 16.5%, 2010~2012년의 탈북민들은 17.3%, 2013년 20%, 2014년 23.9%, 2015년 29.2%이다. 즉 최근에 탈북한 북한 주민일수록 북한 마약 중독자들의 비율을 더 높게 보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비율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마약 단속을 하던 탈북 검사도 “북 주민의 30% 이상이 아편과 빙두(얼음·필로폰) 등 마약을 상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¹¹ 따라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회는 총체적으로 몰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

북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자발적 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출신성분이 좋거나 돈이 많을 경우 혹 49병동으로 불리는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마약 중독에 대한 전문병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에 일부 특수계층을 위한 조선인민군종합병원 ‘11호 병원’이 마약 관련 치료병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고, 이곳에서도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의학 적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가 있다 해요. ... 중독 걸린 사람들은 평양11호 병원 가는거, 거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11호 병원은...특정 인간들을 위한 병원인데 그제. 우리로 말하면 특 ... 네. 특수계층을 위한 병원이다 말입니다. ...”¹²

설문조사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마약 단속에 따른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약 범죄자들에 대해 공개처형(사형) 12%, 정치범수용소 수감 5.6%, 교화소 수용 44%, 단련대 수용 14.3%, 그리고 뇌물을 주고 석방된 경우가 23.1%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교화소의 경우 장기간 구금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처하거나 방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병원 가는거 못봤어요. 거기는 병원 ... 운영 자체가 돌아 안가기 때문에 ... 교화소 가서 줄라 두들겨 맞는다고. ...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 가뒤통고 두들겨 패는거.”¹³

북한이 1990년대 이후 마약 사용자들이 급증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경제 몰락으로 인한 국가배급시스템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은 20~30%대에 불과했고, 거의 매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보통 전쟁 시 일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평화 시에도 이와 같이 경

제가 몰락한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불리는 ‘대량아사 사태’를 야기시켰다.

1995년부터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주는 상황 속에서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병원에도 의약품이 없으니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치료받는 데 필요한 의약품들까지 다 사서 가야만 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필요한 목록을 만들어서 주면 환자들이 장마당에서 약, 주사, 거즈 등 모든 의약품과 의료처치에 필요한 비품들을 사갖고 간다는 것이다. 이때 의사들은 필요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잉여분을 챙긴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페니실린을 장마당에서 사오라고 하는데 만약 20대가 필요하면 40대를 사오라고 해요. 그중에 한 5대 정도는 간호사가 가져가고 남은 것은 의사가 아내를 시켜 다시 장마당에 내다가 팔아요.”¹⁴

북한 내에서 정확한 마약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탈북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 상황을 추정해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합당하게 해결해나가리라고 기대

8 남한의 ‘차 한 잔 할래?’와 같은 인사말로, 필로폰을 흡입하자는 뜻으로 쓰이는 은어

9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47.

10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46

11 『조선일보』, 2021년 7월 23일자. ““주민 30% 마약...한류에 폭빠져” 김정은이 말한 ‘악성암’ 北 덮쳤다”

12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56.

13 양옥경·윤여상·이관형·김성남, p.259.

14 민하주·정형선·김선미,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이용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201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p.73.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이탈주민과 마약문제

전 수 미 교수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변호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사(餓死)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큰돈을 아낌없이 쓰겠지만 주민들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이 국가 재정을 지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북한 주민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마약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몰락한다면 통일 후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남한은 이제 이 북한 마약 문제를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의 문제로, 아시아의 문제로,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UNODC(UN Office on Drug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를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국내외 NGO들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고, 이 일을 남한 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통일전략 22권 2호에 실린 논문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이용희 저)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북한 자본주의의 꽃, 마약에 대해 보도하면서 남한 내에서도 북한 마약문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201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의 총책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필로폰 복용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북한이탈주민을 약 20년간 섬기며 북한이탈주민 전담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저는 이번 글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약에 연루되는 이유와 북한 마약의 역사 및 실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 마약의 역사는, 1950년대 해방 전후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아편의 소비와, 1960년대 국가차원에서 북한 내 헤로인 생산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의 불법 마약 거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불법 마약의 제조, 판매, 밀매와 합법 의약품 위조가 포함됩니다. 산이 많은 함경도와 양강도, 특히 김일성 주

석이 아편 농장 건설을 승인한 지역에서 그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외교통상부 산하 류경공사와 같은 기업을 이용해 마약과 관련한 은밀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회사는 아편 재배를 위해 북한 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년 수만 달러의 외화를 김정일에게 송금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달리 류경 주식회사는 수출입 쿼터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기근 때 양귀비가 아니라 곡식을 키워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중앙 정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면 그 양귀비를 팔아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곡식을 사는 데 10배나 그 값을 쳐주기에 달러를 버는 유일한 방법은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메스암페타민(북한에서는 빙두(冰毒)) 사용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저널리스트 아이작 스톤

피시(Isaac Stone Fish)에 따르면 북한에서 화학자 및 계약직 과학자들이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했는데, 이 메스암페타민은 종종 북한 내에서 ‘약물’로 간주되어 북한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은 전면적 무상치료를 채택하여 인민보건법 제9조에 의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라면서 “모든 의료는 완전히 무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내 의료 시설 및 약품은 매우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각 집마다 텃밭에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여 가정용 약으로 사용하다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메스암페타민이 ‘만병통치약’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대마는 민족섬유, 잎담배라는 이름으로 보다 친숙하게 인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아편은 백도라지 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재배 사업의 대상으로서 장려되었던 국가 마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서 빙두, 얼음, 물, 뽕 등으로 불리는데, 북한에서 살면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열이 나는 그 어떤 병에도 이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북한 마약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국가에서 의료지원을 하지 못하자 북한 주민들의 감염성 질환, 면역력 결핍 등에 따른 질병에 노출정도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만병통치약’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

시피 이러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어느 약보다 그 약효가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탈북 과정에서 부모님이 싸주신 양귀비 가루를 먹던 친구들, 북한에서 아플 때마다 약을 구하지 못해 결국 만병통치약인 마약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던 사람들에게 마약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복통, 두통 등으로 아플 때 웬만한 약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약보다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약은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어릴 때부터 진통제와 항생제에 자주 노출되면 어른이 되어서는 웬만한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져 병원에서도, 장마당에서도 약을 구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마약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마약만큼 강력하고 효과 좋은 약이 없기에 다시 마약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 오면서 체제의 다름과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이방인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마약은 가난한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것처럼 종종 남한에서 생존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북한산 메스암페타민(빙두) 거래를 요청하고, 중국과 제3국을 통해 우회하여 받아, 남한 내

가격이 저렴하고 성분이 좋은 마약을 유통하는 좋지 못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남한에서 가까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동기 친구 부탁으로 잠시 물건을 부엌에 보관해 주었다가 어느 날 경찰이 집안에 들이닥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하나원 동기가 맡긴 것은 바로 북한산 마약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꼼꼼 포장되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물건을 맡아 부엌 구석에 두었던 그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영문도모른 채 마약소지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이 탈북민은 재판에 넘겨졌고, 본인이 아무리 “정말 마약인지 몰랐다, 친구가 잠시 맡아 달라고 해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해도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 의해 처벌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 탈북 청년이 남한의 청년과 술을 과도하게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마약사범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한 청년이 “북한에서 온 이 XX야. 너 간첩이지? 빨갱이지?” 하며 자신을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자, 북한에서 온 이 청년은 이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북 청년이 법정에서 쌍방 폭행 건으로 진술하는 중에 갑자기 법원의 판사가 검사에게 서류를 받더니 그 청년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바로 탈북 청년의 머리카락 검사결과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에서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탈북하면서 부모님이 아플 때마다 챙겨먹으라며 하얀색 손수건에 손수 싸주셨던 하얀색 양귀비 가루, 즉 아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용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는 큼니다. 우리가 ‘대마’라고 부르는 북한의 잎담배는 남한에서 오락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담배 대용으로 활용되거나 민족섬유로서 의류로도 활용되는 귀한 자원입니다. 의약품이자 외화벌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편이라고 부르는 양귀비 가루도 남한에서는 마약으로 활용된다면, 북한에서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성의 피임용 약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의 라남 제약공장에서 아편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편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로폰으로 부르는 빙두는 북한에서는 주로 고난의 행군 이후 고단한 삶을 즐겁게 해주는 약으로, 또 고통을 절감해주는 의약품으로 활용됩니다. 이 또한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평양시 상원군의 평양 제약공장과 함경북도 함흥의 흥남 제약공장을 통해 생산됩니다. 필로폰의 주 원료인 에페드린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무너진 의료 인프라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면서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는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마약청정국으로서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남한의 법적 시스템의 최대 희생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

탈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마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는 시련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을 정죄하려 하셨을까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온 미래의 한반도인(韓半島人)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공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대마초나 아편, 필로폰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대마는 합법적인 약이자 담배입니다. 또한 무너진 무상치료 시스템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편의 재배 및 사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묵인 중입니다. 특히 북한은 1997년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물을 끓여 먹고, 손발을 씻을 것을 권장하면서도 마취제로서 아편을 사용하게 하고 두통과 소화불량에 빙두(필로폰)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치료보다는 위생검역증을 통한 환자와 일반국민의 격리 및 여행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전염병을 관리하였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아편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무상치료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장마당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주민들 자체 민간요법으로 아픔을 해결해야 하기에 생존을 위해 합법적으로나 묵인하에 마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향락을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남한의 마약사범과는 너무나도 다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먼저 인식하고 그들을 이해하여 체제가 다른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된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완전한 육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해 조직화된 노력과 협력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가 더 이상 북한주민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의 산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마약은 여러 경로를 통해,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프레임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제사회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합심하여 북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헌법 4조에서 이야기하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의 건강격차 해소, 향후 발생할 통일비용 절감, 통일 이후 변수를 최소화, 그리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협원으로부터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 마약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성적 마약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명령제¹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병통치약으로서 마약을 접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약물치료가 중단되면 반복적으로 재발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하였을 때, 재발률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치료명령제의 도입에는 엄격한 규정과 관리 또한 요구됩니다. 운영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엄격히 제한

1 (편집자 주) 외래치료명령제(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의 하나이다.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는 법에 의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투약과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보건의료기관이 이 사실을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진표 외 “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 사회정신의학 2001;6(1):58.) 한국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외래치료지원 관련 조항을 통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 입원한 북한이탈주민 마약 중독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치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약에 관여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발견 및 개입하기 위하여, 각 지역 교회에서의 영적 돌봄이 또한 필요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보호가 전부이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 공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보다 남한이 우월하다는 전제로 북한에 대한 지우기를 강요하고, 남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화와 정착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괴리와 좌절감,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포심을 야기하여 남한 사회 정착 실패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공동체가 먼저 북한과 북한의 마약 실태를 공부하고 그들이 마약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손 내밀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정한 정착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성적인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의 일상화

김재환 (부산장신대학교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들어가며

최근 뉴스를 보면 한때 ‘마약 청정 국가’라고 불렸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 남녀노소, 심지어 청소년에게 이르기까지 마약 사용 문제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방송되고 있으며, 이제 정부와 일반 시민들 역시도 그 심각성을 점차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약이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며 술, 담배, 도박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북한 주민의 약물 문제는 오래되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실제로 현재 최근 10년 안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아편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마약이라는 단어를 넘어 그들에게 매우 흔한 물질이며, 메스암페타민의 은어인 얼음, 빙두, 아이스, 한코(메스암페타민을 태워 코로 흡입하는 것)라는

용어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하며 일상적 용어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마약 사용 문제는 일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에 북한에 마약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황당하게 느껴지며, 더 나아가서는 먹고살기도 힘든 북한에서 무슨 마약이 있으며, 어떻게 마약을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북한 주민에게 마약은 이미 너무나 보편적인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 겐 새로운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

북한은 오랫동안 대규모 마약류 약물 생산 및 밀수로 인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미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에서는 매년 발행하는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4년 동안 북한은 국가 주도로 헤로인(heroin)과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생산 및 유통하는 국가이며, 동아시아의 약물 유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과거 북한 외교관들의 대규모 마약 밀매가 적발되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the U.S. Department of State, 1999; 2002; 2008; 2016; 2017). 그러나 과거와 달리 북한 정부 주도의 약물생산 및 유통은 잘 관찰되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약물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the U.S. Department of State, 2012; 2014; 2015). 바로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2012년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의 메스암페타민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2014년 보고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며 내부 수요에 의해 메스암페타민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5년도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 실태를 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실태를 보고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다수가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 사회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명백히 확산(apparently widespread)되었고 보고했다. 특히 의약품의 부재와 효과적인 공교육 부재로 인

해서 북한 주민들이 메스암페타민을 의학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독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공식적 보고 이전부터 다수의 국, 내외 언론에서는 이미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한영진(2006)은 북한에 마약 중독자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2005년 일본 아사히 TV에서 방영된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주민 3명이 아이스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지폐를 맡아서 흡입하는 장면을 소개했다. 특히 이 글에서 국외 수출을 하던 마약이 국제 사회 감시와 단속으로 인해 북한 내부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했는데, 한영진(2006)은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하여 아편, 동마라고 불리는 헤로인, 도리도리라고 불리는 엑스터시(ecstasy)에 이르기까지 북한 내부에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식적인 언급이지만 이 당시에 이미 평양 주민의 수만 명 그리고 함흥시의 젊은 층의 다수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약물로 인한 사회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메스암페타민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내 메스암페타민의 사용 확산에 대해 자세하고 다루면서 그 심각성을 전 세계로 보도했다(Kan, 2013).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언론에 비해서 뒤늦게 발표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이 언급된 논문은 Yun과

북한의 메스암페타민 확산 단계(Lankov & Kim, 2013, p 55)

단계	년도	약물 사용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1단계	2004-2008	• 당 간부 및 중간계층 관료, 경찰관, 밀수자, 개인사업자 • 성별 및 연령: 남성, 35세-50대
2단계	2007-2010	• 사무 및 노동자, 소 상공인 • 성별 및 연령: 남성 및 여성, 20대-50대
3단계	2009-이후	• 학생 및 아동 청소년(youth) • 성별 및 연령: 남성 및 여성, 10대 후반부터 50대

Kim(2010)의 북한의 내부 약물 생산에 관한 연구 중에 처음 나타났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Lankov와 Kim(2013)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북한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계층에서 사용되던 약물 사용이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안지현(2016)도 북한 청소년 약물 사용 실태와 대책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의 사용이 유행하고 아편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후 양옥경, 윤여상, 이관형, 김성남(2018)이 대규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혼합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탈북시기가 최근 일수록 북한이탈 주민의 약물 접촉경험이 60%가 넘어감을 확인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 및 북한 내 약물 유통 상황의 심각성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본 저자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시한 최근의 연구(김재환, 2021)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북한주민의 약물 사용과정과 유형, 그리고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왜? 북한 주민에게 마약 사용이 확산되었으며 일상화되었는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사회란 비인권적인 억압과 통제로 만성적인 삶의 곁핍을 유발하는 사회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삶은 곁핍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공포와 억압을 수단으로 주민을 통치하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인권적인 처벌과 사형에 관하여서는 어린아이조차 알고 있을 만큼 북한 사회는 북한 주민에게 공포스러운 사회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환경 속에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이 늘 불안 속 살아간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일상의 심리적 피로감과 권태는 더욱 커져간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에게 질병은 스스로 극복해야 할 생존의 위협이다. 유명무실한 북한의 의료체계는 북한 주민들에게 암묵적으로 자가 치료(self-medicate)를 요구한다. 병원에서 의료설비를 가지고 진단하고 의사의 처방과 진료를 받는 것은 무늬만 있을 뿐 일부 계층의 전유물과 같다.

흔한 병원에서 x-ray를 찍고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사서 스스로 투여하는 식의 삶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하다.

•북한 의료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이상 아편중독자를 생기는 것을 또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시골에 의료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만성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치료가 돼야 하는데. (참가자 10)

또한, 소수의 조선노동당의 당원이나 고위층 관료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녹록치 않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 명이 아사(餓死)한 이후에도 북한 주민은 여전히 옥수수와 쌀 1포대면 행복을 느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을 해도 월급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생계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배급만을 믿고 살아왔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통사회에서의 구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신성분에 따라 생활지역, 직업,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은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반복된 삶의 일상에서 오는 권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북한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지를 마르게 한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억압 속에 터져 나오는 조절되지 않는 감정, 반복되고 희망 없는 삶의 권태와 무기력,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버린 가족의

해체로 외로움과 불안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자연히 또 불법을 하게 되요. 공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하게 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잡혀가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살리자는 거야 죽이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힌 엉망인 삶이 사람을 점점 죽여 가는 그런 느낌을. 희망이 없다. 한 코(메스암페타민을 태워서 흡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친구들하고. (참여자 6)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이 심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이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 약으로 쓰기 위해 집 앞마당에서 한두 대씩 심던 아편에서부터 국가가 대량으로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써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어느 산촌 시골에서의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메스암페타민 파는곳이)두부 집만큼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두부 집이 북한에 두부를 만들어서 다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두 마을이면 한 삼 사십 가구? 한 40가구 정도에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북한 주민에게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이자 이제 삶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마약이

라는 것을 북한 주민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자식의 고열을 잠재워주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모(老母)를 일으켜 주는 소중한 만병통치약(panacea)이기도 하다.

한 13살, 14살. 중학생 되어서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아편)주사 맞으러 저녁마다 이렇게 몇 명씩 (저한테) 와요. (아편 많이)하면 망해서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내가 아플 때 놓을 수 있는 거는 아편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이웃 어른들은) 내가 그걸 잘 놔주니까 사탕, 과자 이렇게 한 줌 쥐어주고 그게 참 기특하고 예뻐했던 것 같고. (참가자 9)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그들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삶에 지쳐가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한 잔의 술과 담배 한 모금처럼 서로를 위로해주고, 낙이 없이 계속되는 삶의 권태와 고통 속에 찰나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줌으로써 지금의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낙(樂)이다. 그뿐만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은 수험생의 졸리는 눈을 뜨게 해주고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이자, 날씬한 몸매와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미용 도구이며, 밤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일하는 지친 일꾼에게 힘을 주는 자양강장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약물 사용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빠가 보위지도관이랑 친했는데 이 사람이 뭐 돈도 많고 이쪽으론 이미 뭐 다 뚫려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할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아빠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도 와 이거 여자 피부에도 그

렇게 좋대’라고 하면서 나도(17세)시키고 우리 엄마 밤에 장사할 때 ‘피곤함 다 깨주는 거다 잠이 안 온다’ 하면서 또 엄마도 한 코하고. (참가자 9) 외삼촌이 한번 시켜줬어요 저희들을. 저 사촌 형도 시켜줬고(중략)같이 그냥 재밌게 하자고. (참가자 10)

이로 인해,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권유하고 권유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됨에 따라 화폐나 상품처럼 북한 주민의 삶에서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사치품으로써 여겨지면서 심지어 뇌물로써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일반 북한 주민에게는 사실 고가의 사치스러운 물건이다. 아편은 구매할 경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고 시골 지역에서 직접 재배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1g이면 대도시 지역에 거의 북한 주민 한명의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기에,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메스암페타민은 사용 빈도는 상이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메스암페타민 유통방식의 변화에 의해 극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밥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청소년)은 다 한다고 하죠 (중략) 친한 애들끼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이제 잘 나가든(사회적 지위), 잘 나가지도 않고,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애들 안에서 뭐 사고팔고도 있거든요. 제 친구가 몰래 가져다가 팔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냥 흔한 거죠. 저희 쪽에서는 진

짜 흔해요. (참가자 7)

•빙두가 옛날에는 1g에 중국 돈 1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그램(1g)을 통으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도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데 이거를 공일(0.1g)씩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 돈 5원 7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깐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돈에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지금은 0.1g, 0.2g, 0.3g 돈에 따라 주거든요. 누구나 한 코(흡입)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2015년대부터 그러기 시작했죠. (참가자 2)

이처럼 아편과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약물로 중독되는 사람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극심한 금단증상으로 인해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파산상태가 되거나 궁극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싼 약물을 구하기 위해 2차 범죄로 절도 및 사기, 그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으로 인한 살인, 폭력,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필로폰은 바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온몸에 힘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고, 피곤을 모르니까 일하고 싶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기분이 UP 되는 거. (중략) 삼촌은 벌레가 몸에 기어 다닌다고 해서 온몸이 유리가 박혔다고. 살을 계속 파는 거예요. (참가자 10)

중학생들 이거 하면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나 그런걸 지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집단 단체로 막 성관계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막 그러가지고 그거 때문에 중앙당까지 엄청 막 그럴 정도로.(중략)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자기 형도 칼로 막 찌고 제 친구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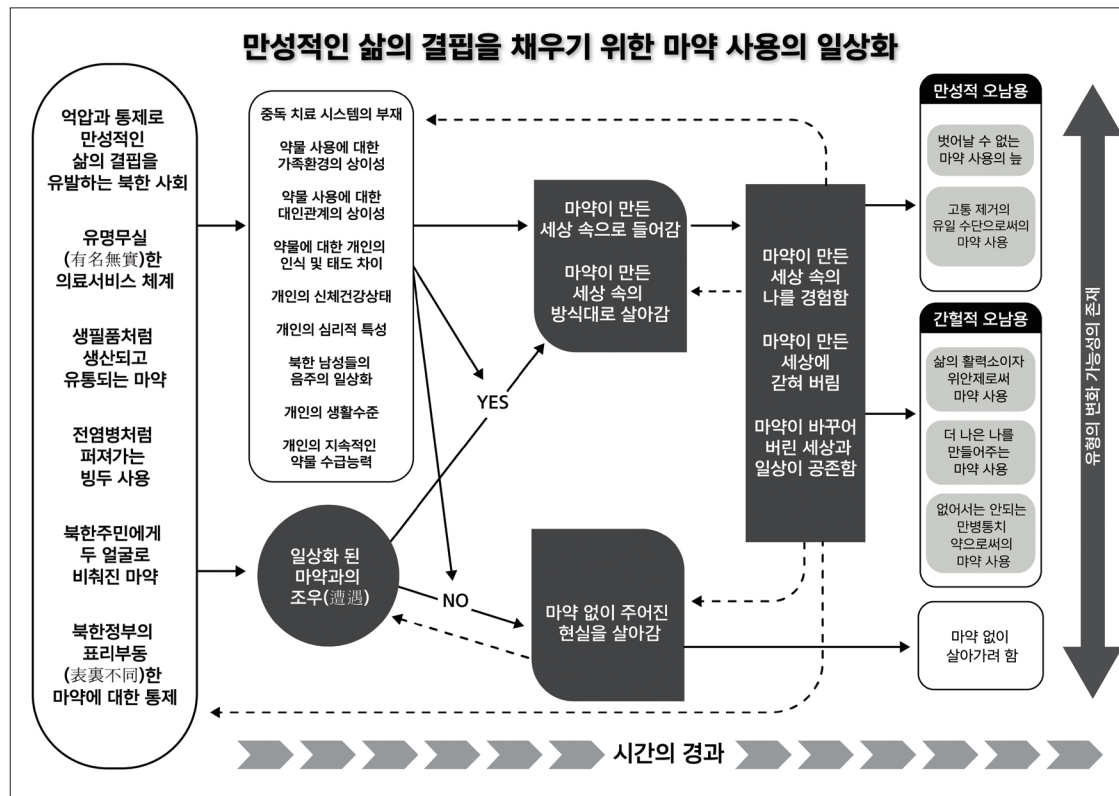
랬거든요. 제 또래 애가 막 형이 욕했다고, 집에 가더니 음식 칼 있잖아요, 음식 칼 막 빼서 배에. (참가자 1)

북한 주민들에게도 마약 중독자는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국가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비인권적인 국가의 처벌 뿐, 전문적인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런 서비스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약물 중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미약한 국가의 의료 서비스 및 자신의 의지와 자가 치료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냥 처벌받는다고, 치료받는 거 못 들어 봤어요. 단련대가니까, 이제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는. 옆집에 언니도 그렇게 잡혀갔어요(참가자 5).

마약의 전염병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한편 약물 사용이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도 약물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수준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임과 동시에 중독성과 부작용이 매우 심한 약물로 인식한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모르핀(morphine)이나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강한 아편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부 북한주민들은 극히 제한된 사용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의료 서비스 이용이나 대체재를 사용할 수 경제적 여유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약물
에 대한 정확한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
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심리, 사회적으로 건강한 보
호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끼
리 약물 사용을 통제하고 교육하는 경우나, 자
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과 삶의 강한 의지, 강한
책임감, 가족의 유대감과 응집성이 높은 경우
에도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약물 사
용이 북한 사회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가
족이나 주변에 심각한 약물 사용의 폐해를 간
접적으로 목격한 경우나 본인이 그 피해의 당
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 떻게 할 것인가?

1) 북한주민들에 대하여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긴밀하게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에 있어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여, 먼
저 민간차원에서 적십자나 남북의료협력 기관 등
을 통해 북한의 의료체계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
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
한 주민의 정신건강과 약물문제에 대한 개입과 지
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코로나 상황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경색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향후 남북한 정부 간의 회담 및 협약 등에 현
재와 통일 이후 남북한 중독문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경제 및 문화 교류 등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양국 회담 및 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약물 사용문제에 대
한 부분들도 함께 다루면서 통일 후 약물 통제 및
국민들의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내에서도 북한 당국이 약
물 사용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통일 이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
한 통일 비용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
의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제 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미
국무부를 비롯하여 유엔 전문기구들은 북한 정부
의 마약 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이 기
관들과 협력하여 북한 정부의 마약생산 및 거래뿐
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약물 사용문제를 인권
및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
으로써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되도록 압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WHO 및 세계 적십자회 등
과 협력하여 북한의 주민의 약물 사용 문제에 대
해 직,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의료 및 치료서
비스 시설과 의약품 공급도 적극적 지원 할 수 있
는 방안들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와의 대규모 연구팀을 구성하여 북한을 중심
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약물 사용 문제를 연구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약물 사용문
제에 관하여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약물 사
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입이 선행될 필요하
다. 이미 북한이탈주민들 내에서도 약물거래 및 약
물 사용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
한이탈주민의 범죄 실태 중에 2016년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가 전체 범죄의 36,3%를 차지하며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성수, 2018). 최
근 2021-2022년 언론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범죄
내용의 1위가 마약류 범죄라는 것이 계속 보고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과거
북한에서 약물 사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남한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약물 문제와 관련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시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을 중
심으로 마약류 관련된 정확한 정보 및 예방 교육
을 실시하여 실제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체계
와 심리서비스 치계 접근에 대한 어떠한 건강과
서비스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 교회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야 한다. 비록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왔지만 여
전히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무엇보다 영적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다. 현실은 일부 소수의 기독교
인들과 단체들만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제는 한국 기독교 교계와 교회들

이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안 이웃이 제공한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영적 총만함이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있을 때, 이들이 마약을 거절하고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맺는말

대한민국은 이제 Covid-19이 엔데믹 상황에 있고 끝의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 없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정치적 고통 속에

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달래는 것이 여전히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이 아닐까 매우 우려가 된다. ‘만성적인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의 일상화’라는 본 글의 제목처럼 북한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어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한주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성적인 삶의 결핍 속에서 마약의 힘에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맡기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중독의 강을 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 🙏

〈참고문헌〉

- 김재환. (2021). 북한주민의 약물사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동대학교
- 안지현. (2016). 통일 후 북한지역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옥경, 윤여상, 이관형, 김성남. (2018).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대책. 동아연구, 74, 233-270.
- 이석영. (2015). 북한은 어떻게 마약천국이 되었나. 북한, 524, 75-81.
- 한영진. (2006). 북한 마약중독자 범람으로 골머리 앓아 - "아이스" "총탄" "덴다" "도리도리" 각종 마약종류 범람. 북한, 420, 132-140
- Kan, D. (2013, August 20). How North Korea got hooked on crystal meth. [Video].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video/how-north-korea-got-hooked-on-crystal-meth/467B427A-A641-4155-BCC6-93BC04796BC4.html>
- Lankov, A., & Kim, S. (2013).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Upsurge in methamphetamine abuse across the northern areas of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9(1), 45-60. doi:10.3172/NKR.9.1.45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99, 2002, 2008, 2012, 2014, 2015, 2016, 10'7).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 Drug and Chemical Control.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Yun, M., & Kim, E. (2010). Evolution of north korean drug trafficking: State control to private participation. North Korean Review, 6(2), 55-64. doi:10.3172/NKR.6.2.55

주님의 은혜 (2)

김 모 란 (탈북청년 공동체 간사)

5. 2019년, 탈북대학생 친목 동아리 『○○동무』 회장을 맡다

이렇게 귀한 헌신과 후원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신앙공동체가 아닌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동아리로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은 우리에게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9년도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키다리아저씨’는 탈북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탈북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기초지식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탈북학생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대학 수업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에 비해서 영양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통학시간에만 왕복 3~4시간을 허비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이렇게 체력이 소모되면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장학금

은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공부할 시간은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졸업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학교 근처에 기숙사가 있으면 학생들의 통학시간과 불필요한 육체적 소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외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키다리아저씨’는 즉시 학교 근처 아파트를 보증금 3천에 월 110만원으로 계약해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 1 기숙사 해피하우스〉

우리는 이 아파트를 ‘해피하우스’라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매 학기 6명의 학생이 거주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입주한 학생들은 직전 학기 대비 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경영대 전체에서 차석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6. 혼돈 속에서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회장 언니, 제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아리에 후원금이 들어왔다는데, 혹시 저에게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당시 그 학생은 여러 곳에서 월 1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00아, 이 후원금은 성적이 낮아서 어디서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월 10만원씩이나마 식비로 지원하는 것이야. 네 사정은 어렵겠지만, 이것만은 안 되겠어.” 또 하루는 다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언니,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교회를 두 탕 뛰어요. 이제 교회 하나는 끊으려고 하니 저에게도 10만 원, 장학금 주실 수 있나요?” “△△아, 교회를 두 탕 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전에는 다른 교회, 오후에는 다른 교회 이렇게 두 곳에서 다 지원받아요. 근데 한 곳만 다니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라면 지원하기 어렵구나. 동아리에는 교회 장학금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이 돈을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고민해봐야 하고……” 그렇게 학생을 타일러 돌려보냈지만 돈 때문에 교회에 가는 현실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언니, A는 어느 장학재단에서 얼마를 받고, B는 얼마를 받고, C는 얼마를 받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어요. 저에게도 동아리 장학금을 좀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천지 가리지 않고 종교를 바꿔 가면서 많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단호히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작은 돈이라도 더 탐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짜를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학업,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중앙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 탈진해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때로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그달에 생일인 학생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 주었고, 여러 교수님을 초빙해서 글쓰기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재비를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수에 있는 어학연수원과 연계하여 두 명의 탈북학생을 해외로 1년간 어학연수를 보냈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어학연수에 필요한 등록금과 경비는 1인 800만 원, 두 명에 1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으나 400만 원이 부족하여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남편이 적금통장을 내어 주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 현금해 주었고 최종 등록금을 보내 줄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동아리에 속해있는 한 학생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던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서 119 구급차로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서울 소재의 병원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구급차 안에서 6시간 넘게 사경을 헤매다가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대 병원 원장님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탈북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 없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혈혈단신으로 힘들게 사는 탈북학생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와 연결된 병원도 있고 하니, 원장님께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좀 도와주세요.” 원장님은 향후 탈북학생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수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7.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2019년 5월, 대학 대강당에서 학교 창립 13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찬양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총동창회 선교부로부터 기념 예배에서 간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이 왔는지,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미리 원고를 준비했었으나, 막상 단상 위에 올라서니 원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원고를 덮고서 즉석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덤덤하게 전했습니다. “... 어린 시절 옆자리 친구들이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133년 전 이 척박한 곳에서 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던 조선여성들을 하나님의 딸로 교육했던 한 여선교사처럼, 저도 통일 후에 저 북녘 땅에 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기독교 여성대학을 세우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날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끔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아리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대놓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동아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이 아닌 단순 친목 도모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너무 내세우면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에 다니는 몇몇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1) 우리 교회는 하루 결석하면 5만 원을 삭감한다. 무척 자존심이 상한다.
- 2) 교회에 가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다.
- 3)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4)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가는데 위로는 받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뿐이다.

이에 저는 동아리 내에 찬양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율적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우리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 편하게 함께 모여 앉아 말씀을 읽고, 울고, 웃으며 우리의 억양과 표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6명의 학생이 호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

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나 부귀도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를 받아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일마다 6명이 둘러앉아 찬양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다 함께 찬양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했는데, 우리들은 항상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모두 한 주간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8.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제가 대강당에서 간증한 이후에 악의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리 내에 비기독교인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몇몇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회장언니가 이 동아리를 무슨 종교단체로 만든다”, “후원금을 회장 마음대로 오남용한다”, “후원금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줘야한다.” 등등 각종 유언비어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도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며 이간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욕하는 학생들을 따로 만나서 잘 타

일러보기도 했으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다. 사실 후원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월세로 지급되며, 그 외 여분은 활동 계획에 맞게 지출한 후, 동아리 총무가 정확한 회계와 보고로 전체 회의에서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한편 동아리에는 같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로 비수를 쏘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性)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라며 주위 사람들에 까발렸습니다. 급기야 서로의 부모까지도 싸잡아 욕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며 싸웠습니다.

저는 회장의 권한으로 두 학생을 따로 불러서 이제 더는 싸우지 말고 조용히 지내주길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기는커녕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저는 친목으로 시작했던 이 모임의 한계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인계인수를 마무리한 후,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1년은 많은 깨달음을 얻은 소중한 한해이자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뒤로 하면서까지 제 댄에는 열심을 다했으나 많은 열매는 맺지 못한 것 같아요. 아울러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되뇌었을 뿐, 내 영혼에서부터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었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쓴 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울삼아서 저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 2020년, ‘아가페통일리더’가 탄생하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일련의 사건을 통해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단순히 친목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했지만, 저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의 한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그냥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함께 해요.” 그렇지만 영혼도 육체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정말이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저 영혼들을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북한선교, 탈북민 사역을 해 오

북한, '선제공격' 핵사용 5대조건 천명… '참수작전'에도 핵타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어서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기존 법령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선 부득이한 정당방위 수단'이었지만, 이번 새 법령은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 용도로도 쓰도록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북한이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모두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는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정책 법령을 통해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외부의 비핵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해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가운데 노골적인 핵 '협박'까지 더해지면서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도 비핵화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9월 9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등에 대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위기 관리'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2일)

신 분들을 수소문한 뒤 따로 연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돌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후원자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간절합니다.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학생들로 주축인 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후원자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학생들이 나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든지 말든지 모두를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냥 친목 동아리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저희를 믿고 한번 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북한에 전하는 통일리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바로 서야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후원자님은 ‘아가페통일리더’ 공동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속히 지도교수로 섬겨주실 분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려 흔쾌히 승낙을 얻은 후 정관 작성 및 로고 제작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내에 크리스천 탈북학생들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적합한 학생들을 3명 선발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로 세웠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회장단과 회원들을 섬기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초대 아가페통일리더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탈북학생 16명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 ‘아가페통일리더’의 탄생은 탈북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의 억양과 표현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안과 평안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김정은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 언급... 실제 가능성은?



〈2018년 7월 함북 여량천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공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뉴스핌 재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북측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운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은 제기돼 왔으나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거나 북한 당국이 공론화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 작전들을 끊임 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 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해야

한다”며 대운하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동서해를 선박을 이용해 오가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어왔다. 서해 남포항에서 동해 원산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단 한국 영해 밖으로 먼 항로를 에둘러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도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가 건설되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렌 등 중국 항만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적인 해상루트도 마련돼 상당한 외화획득(통과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대운하 건설을 ‘전망적인 경제사업’으로 꼽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 등을 강조한 것은 이미 대운하 건설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건설 방침을 공식화한데다 “국가적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후속 움직임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운하와 관련한 통과 구간이나 구체적인 건설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시대 대표적 무역창구인 벽란도가 있는 예성강 하구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구간과, 남포 하구부터 대동강을 따라 상류지역에서 합류한 뒤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유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참고: 뉴스핌, 9월 12일) 🐟

북, ‘아킬레스건’ 식량난 연일 언급... “현시기 급선무 과제”



〈식량 생산 관련 북한의 선전화〉

북한 관영매체가 최고지도자의 통치기반을 허물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식량 문제’를 연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만성적인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악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23일 1면 기사 ‘현시기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에서 “먹는 문제, 소비품 문제를 푸는 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하는 데서 급선무로 내세우고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불과 나흘 전에도 1면 사설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을걷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며 쌀농사 마무리를 잘하자고 촉구했다. 이튿날도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왕겨와 쌀겨 등을 간장, 된장 등 기초식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당(糖)을 만들 때 북한의 주요 식량원인 강냉이(옥수수)가 아니라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쓰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올해 국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이어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맞으면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연평균(80만t)보다 많은 121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기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3~5%가 아사했다고 추정되는 1990년대 대기근 시절에는 쌀 가격이 약 8배까지 폭등했고, 물가 폭등 현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량 가격 및 환율을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물가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위기를 이유로 남한, 미국 등과 대화할 여지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2면 기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존엄과 영예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국들의 하청경제, 자본가들을 위한 경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의 길은 자력갱생의 길”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경제지원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하겠다는 남한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고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3일) 🐟

1 북한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빙두(필로폰)이 상당히 퍼져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료 기반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빙두가 일종의 의약품처럼 사용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북한 당국은 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및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없는 통제 일변도 대응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마약을 의료용으로 찾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마약문제는 단순한 의료 이슈만이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마약에 중독되었던 이들은 북한의 억압적이고 희망 없는 사회, 그리고 언제든지 숙청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마약 사용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접촉하게 될 마약으로 고통 받는 탈북민들과 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일은 교회의 복음 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가 그러하는 것처럼 마약 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9월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더 나아가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은 비핵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최소화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코로나 대확산과 수해 등 자연재해, 그리고 국제 곡물가 폭등 등으로 인해 식량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7월 25

일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사 작황도 좋지 않아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연평균과 유사한 80만 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지만 미국 농무부는 이보다 많은 121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을 0%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 완화는 북한선교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해상을 통한 무역이 일부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경 전반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될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전에는 북중 국경 개방은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고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되어 교류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외에도 청년교양보장법 등 기독교 박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문화 통제 법률을 만들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안타깝게도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의 소식이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에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우울증으로 인한 탈북민 고독사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과 만나고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져야 하지만 탈북민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탈북민 부서들도 대면 예배 중단 및 교회 여건 악화로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위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 기도가 꾸준히 이어져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선교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 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9월 30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